

Marcus Yabe

- I 선의 발견
- II 형태의 발견
- III 존재의 격앙 · 제1부
- IV 존재의 격앙 · 제2부

회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026년 10월판

작가 노트

Marcus Yabe는 말에 다 담기지 않는 것을 그린다. 그의 회화는 2020년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일상 속에 전해지는 비극들과 숨 쉬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었다.

아크릴과 혼합 매체를 겹겹이 쌓은 층 속에서, 그의 선은 자유로운 몸짓에서 원으로, 그리고 이후 보는 이를 똑바로 응시하는 일그러진 얼굴로 진화한다. 작업은 세 시기로 펼쳐진다. 선의 발견, 형태의 발견, 존재의 격앙이다.

가족, 애정, 도시의 폭력, 카니발, 그리고 침묵이 캔버스를 관통한다. 색채가 강렬한 것은 혼돈과 도발을 감추기 위해서다. 비위를 맞추기보다 맞서기를 택하는 회화다.

약력

Marcus Yabe는 브라질 Paraná주 Paranavaí에서 태어났으며, Curitiba에서 살며 작업한다.

예술은 일찍부터 그의 여정의 일부였다. 성인이 된 초기에 연극 연출가, 조명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행사를 알리는 패널을 제작하고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TOPVIEW의 퍼블리셔, Grupo RIC와 Gazeta do Povo의 경영진으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ISE Business School에서 Master in Media Management 과정을 마쳤다.

2020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작업은 캔버스, 판지, 디지털 프린트 접착 시트, 합성 피혁 위에 아크릴과 혼합 매체로 그린 회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력

전시	근일 예정	회화전 · Casa Lespace, Curitiba
출판	2025	카탈로그 001 · 작가판, 4월
	2026	카탈로그 001 · 개정판, 10월
소장	개인 소장 작품	
공연 예술	연극 연출가, 조명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학력	Master in Media Management · ISE Business School	

욕망의 시작

이 카탈로그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운명이 당신을 나의 첫 캔버스와 예술적 실험들의 '무리'와 마주하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나는 신인 작가다. 세계가 겪은 가장 격동적인 시기 가운데 하나에 창작을 시작했다. 그러나 예술은 내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성인이 된 초기에 나는 연극 연출가이자 조명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로 일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행사를 알리는 패널을 만들었고, 청소년기 이후에는 나의 열정 가운데 하나인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다.

나의 작업은 몇 개의 시기로 나뉜다. 선의 발견, 형태의 발견, 그리고 존재의 격앙이다. 이 작품들이 당신을 매혹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를 바란다.

착각하지 말라. 작품들이 살아 있고 색채로 가득한 것은 혼돈과 도발을 감추기 위해서다.

네 개의 악장, 하나의 절박함.

I	선의 발견	p. 07
	21점	

II	형태의 발견	p. 32
	16점	

III	존재의 격앙 · 제1부	p. 51
	16점	

IV	존재의 격앙 · 제2부	p. 69
	23점	

권말에 선언문, 마티에르 세부, 작품 목록, 판매 조건을 수록한다.

선의 발견

선은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는 필요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가슴을 죄어 오는 감정이며, 구성과 무게와 색채 속에서 균형을 얻어야 한다. 장면들은 작가와 동시대를 사는 동료들이 업무 회의에서 들려준 것들이다. 이는 작가가 표현을 향해 나선 첫 탐색이자 첫 외침이다. 최초의 형태는 창작자와 그의 감정을 소진시키는 장면들이 태어날 때의 울음을 옮겨 놓는다.





선의 발견

A Descoberta do Traç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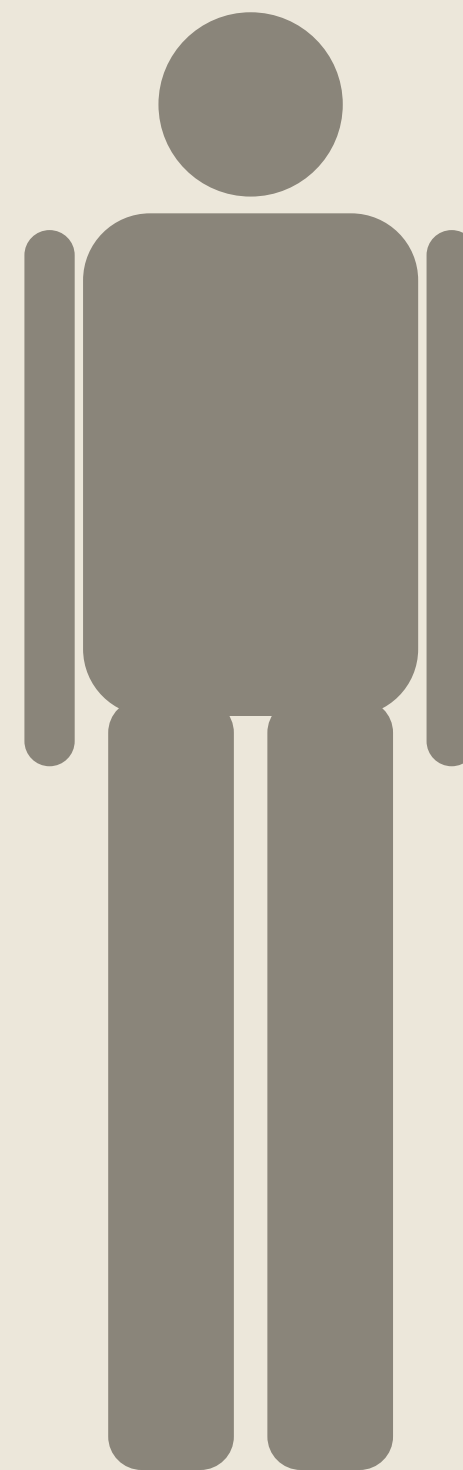
2020 · 118 × 180 cm · 캔버스에 아크릴

내가 처음으로 창작한 작품 ·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선의 발견〉은 상처와 치유를 함께 열어젖힌 그림이다. 범죄 보도가 전하는 비극의 무게와 팬데믹 한가운데서 숨을 쉬어야 했던 절박함에서 태어나, 고뇌와 물감과 침묵의 층을 품고 있다. 그려지고, 다시 그려지고, 자신의 다른 모습들 아래 감추어지면서, 바로 이곳에서 선은 구원으로 나타났다. 색은 진동하지만 그 밀도를 감추지는 않는다. 이 캔버스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선의 발견

스케일 · 118 cm × 180 cm (가로 × 세로)



비교용 인물: 신장 1.75 m



존재의 겹쳐진 선들

Sobreposições de Traços do Ser

2020 · 이면화 20 × 4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존재의 겹쳐진 선들〉은 내면의 층에 관한 이면화로, 마치 각각의 색이 드러나는 것과 억눌린 것 사이의 갈등에서 솟아오르는 듯하다. 유기적인 형태들은 생동하는 육감적 박동 속에 얹히며, 감정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드러낸다. 여기서 선은 그저 그어진 줄이 아니라 몸이다. 자신의 정체성과 씨름하는 몸짓이며, 겹쳐지고, 조각나고, 살아 있다.



연인들을 잇는 선

Os Traços que Unem os Enamorados

2020 · 30 × 3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연인들을 잇는 선〉은 끓어오르는 선들의 춤이다. 여기서 사랑은 고요하지도 절제되지도 않다. 그것은 색의, 욕망의, 엇갈림과 재회의 폭발이다. 두 몸이, 어쩌면 두 영혼이 다가가고, 맞닿고, 애정의 혼돈 속에서 일그러진다. 사랑에는 고정된 윤곽이 없고, 오직 충동과 진동만이 있을 뿐이다. 이 작품은 선이 인연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자아의 혼돈스러운 선

Os Traços Caóticos do Eu

2020 · 30 × 3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자아의 혼돈스러운 선〉은 충돌하는 정체성들의 폭발이다. 작품은 균형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한다. 생동하는 색채, 끊어진 선, 겹쳐진 몸짓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의미를 찾아 헤매는 자아를 드러낸다. 노란색은 혼돈을 비추지만 그것을 해소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들끓는 존재의 지도이며, 그 안에서 각각의 층은 안에서 밀려오는 붕괴를 붙들고 두려워 한다.



선의 본성

A Natureza do Traço

2020 · 20 × 2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선의 본성〉은 유기적인 것과 본능적인 것에 추파를 던진다. 여기서 선은 가지처럼 휘고, 뿌리처럼 퍼지며, 살아 있는 존재처럼 맥박친다. 부드러운 색채와 거의 식물적인 형태들 사이에서, 작품은 혼돈 속에 꽃피는 내면의 본성을 드러낸다. 모든 점, 모든 곡선, 모든 얼룩이 숨을 쉬는 듯하다. 이제 선은 무언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움직이는 유기체다.



세 마리아의 선

Os Traços das Três Marias

2020 · 삼면화 240 × 12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각 80 × 120 cm 캔버스 3점, 일괄 판매 ·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세 마리아의 선〉은 애도와 견뎌의 삼면화다. 자식을 애도하며 우는 세 마리아, 곧 원을 그리는 몸짓과 애정과 고통 사이를 오가는 색채 속으로 녹아드는 보편적 모성의 형상들이다. 각 캔버스는 하나의 통곡, 시간 속에 멈춘 하나의 선을 품고 있다. 함께 모여 침묵과 힘의 제단을 이루고, 그곳에서 부재는 현존이 되며 선은 살아 있는 기억이 된다.

세 마리아의 선

3점 구성 · 2020



부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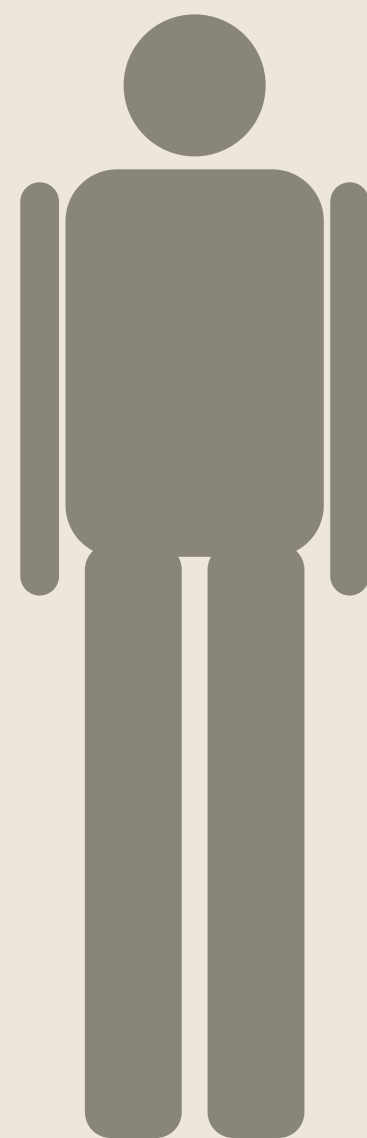
부분 2



부분 3

세 마리아의 선

스케일 · 240 cm × 120 cm (가로 × 세로)



비교용 인물: 신장 1.75 m



그어진 운명 1과 2

Destinos Traçados 1 e 2

2020 · 20 × 4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그어진 운명 1과 2〉는 교차하는 삶들의 신비로운 지도와 같다. 중심의 형상들은 최면적인 줄무늬 사이에서 솟아오르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듯하다. 베이지와 노란빛의 원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봉인, 이미 정해진 운명의 표식이다. 두 그림의 이중성은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일그러뜨리는 평행한 길이라는 생각을 강화한다. 그것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 놓인 선택과 필연이다.



선의 몸 연작

Série Corps dos Traços

2020 · 회화 3점 연작 · 2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선의 몸 연작〉은 갇힘과 확장에 관한 연구다. 허공에 매달린 세 몸이 검은 창살 사이에서 움직이려 애쓴다. 마치 선이 감옥이자 저항인 것처럼. 색채는 경직된 바탕과 대비를 이루며 진동하고, 구조와 본능 사이의 투쟁을 드러낸다. 각 캔버스는 탈주의 한 순간, 중단된 하나의 몸짓을 기록한다. 그것은 자신을 가두려는 한계와 마찰하는 몸이다.



선의 섹슈얼리티 연작

Série A Sexualidade dos Traços

2020 · 회화 4점 연작 · 29 × 21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선의 섹슈얼리티 연작〉은 욕망과 비극 사이의 긴장을 탐구한다. 몸의 열기와, 비극적이든 아니든 고인 피를 동시에 환기하는 강렬한 붉은 바탕 위에서, 검은 선들은 서로 닿고, 피하고, 유혹한다. 그것은 에로틱한 것과 잔혹한 것 사이의 춤이다. 몸짓은 충동이고, 선은 베인 살갗이거나 전율이다. 이 연작에서 섹슈얼리티는 위안이 아니라 대면이다.



1



2

선의 로맨티시즘 1과 2

O Romantismo dos Traços 1 e 2

2020 · 각 29 × 21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선의 로맨티시즘 1과 2〉는 파벨라의 로맨스다. 범죄와 두려움과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로미오와 줄리엣. 선들은 사랑을 데우려면 스웨터를 여러 겹 껴입어야 하는 얼어붙은 판잣집, 그 얇은 이불 아래의 몸들처럼 얽힌다. 이것은 건디는 다정함, 혹독함 속에서 살아남는 다정함에 관한 이야기다. 주위의 모든 것이 침묵을 요구할 때조차 애정이 깃들기를 고집하는 색의 몸짓이다.



어두운 선

O Traço Sombrio

2020 · 29 × 21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어두운 선〉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죄책감이다. 결코 드러나지 않았으나 몸으로 느껴지는 비밀. 어두운 색조와 날카로운 파랑이 움직이는 심연을 그린다. 무언가가 몸을 끌며 기어간다. 설명되지 않은 채, 그저 무겁게. 그것은 이름 없는 기억을 짊어진 선, 목소리를 찾지 못한 죄책감이다. 이곳의 모든 것은 짙은 침묵이다. 마치 캔버스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선의 네 물줄기, 그리고 같은 몸들

4 Fluentes do Traço e os Mesmos Corpos

2020 · 29 × 21 cm · 판지에 아크릴

개인 소장

〈선의 네 물줄기, 그리고 같은 몸들〉은 같은 몸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다. 각 그림은 하나의 증언, 하나의 판본, 하나의 시선이다. 파벨라의 개울은 언제나 그곳에 있어, 풍경과 삶을 가르며 기억과 고통을 함께 씻어 낸다. 선들은 억눌린 말처럼, 침묵 속에 나눈 비밀처럼 흘러내린다. 몸들은 견뎌 내지만, 물살이 지나갈 때마다 결코 이전과 같지 않다.



선, 태양과 바다를 만나다

O Traço Encontra o Sol e o Mar

2020 · 21 × 29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선, 태양과 바다를 만나다〉는 가로막힌 탈출의 열망이다. 가벼운 팔레트는 섬에 갇혀 바다를 도피의 약속으로 바라보는 일의 무게를 감춘다. 선은 출구를 찾지만 결국 제자리를 맴돈다. 태양의 노랑과 바다의 깊은 파랑은 억눌린 희망의 풍경을 만든다. 그것은 무한을 보면서도 떠날 수 없는 감정이다. 끝내 오지 않는 자유.



그어진 장면 1과 2

Uma Cena Traçada 1 e 2

2020 · 각 21 × 29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그어진 장면 1과 2〉는 어떤 사건 앞에서 놀라는 바로 그 순간을 그린다. 충격 속에 얼어붙은 두 몸, 일상을 깨뜨리는 무언가의 소리 없는 충돌. 몸짓은 애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방어다. 생동하는 색채는 위안을 주지 않고, 그 순간의 긴장을 키울 뿐이다. 이곳의 모든 것은 정지다. 비명 직전, 도주 직전, 고통 직전의 일 초. 선은 이미 빠져나간 것을 붙들려 한다.



그어진 파벨라 장면

Uma Cena de Favela Traçada

2021 · 이면화 120 × 80 cm · 캔버스에 초크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그어진 파벨라 장면〉은 군중이고, 열기이며, 생존이다. 각각의 형상은 혹독하면서도 생동하는 일상의 증인으로 솟아오른다. 타오르는 태양, 하늘을 가로지르는 전선들, 뒤텀 몸과 이야기들. 여기서 선은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증언이고, 현존이다. 마치 캔버스가 대화와 총성과 웃음과 기도를 한꺼번에 듣고 있는 듯하다. 절박함과 진실로 그어 낸 인간의 풍경이다.



선과 사람들의 이야기

História de Traços e Pessoas

2020 · 이면화 40 × 2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선과 사람들의 이야기〉는 몸짓과 유대의 만남이다. 흰 선들은 마치 부서진 기억들을 이어 붙이려는 듯 화면을 꿰매는 것처럼 보인다. 노랑, 파랑, 검정의 층 사이로 얼굴과 존재의 파편들이 떠오른다. 서로 스치고, 서로를 잃고, 서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말없이 들려주는 이야기이며, 그 안에서 선은 포옹이 되고, 흉터가 되고, 지나간 이의 자취가 된다.



선의 실존주의

Existencialismo do Traço

2020 · 30 × 3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선의 실존주의〉는 내면의 미로로 뛰어드는 일이다. 짙은 초록, 깊은 노랑, 원을 그리는 길들이 스스로에게로 접혀 드는 사유의 분위기를 만든다. 그것은 끝없는 의미의 탐색, 돌고, 묻고, 머뭇거리는 선이다. 캔버스는 층과 모순으로 가득한 나의 불안한 정신처럼 맥박친다. 여기서 존재는 대답이 아니라 나선으로 그려진 질문이다.



선의 해체 1, 여섯 부분

A Desmontagem dos Traços 1, em 6 Partes

2020 · 캔버스 6점 구성, 각 20 × 2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진 〈선의 해체 1〉은 단절의 과정이다. 각 캔버스는 한때 하나의 전체였던 것의 파편이다. 마치 원래의 선이 산산이 폭발한 것처럼. 생동하는 색채, 겹쳐진 몸짓, 잘려 나간 형태들은 혼돈을 다시 조직하려는 시도를 드러낸다. 그것은 창작의 해부학이다. 선의 몸을 열어 그 안에서 무엇이 맥박치는지 이해하려는 일과 같다. 각 부분은 같은 붕괴의 한 판본을 품고 있다.



선의 해체 2, 세 부분

A Desmontagem dos Traços 2, em 3 Partes

2020 · 작품 3점 구성, 각 29 × 21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선의 해체 2〉는 진행 중인 붓기다. 흑백의 그래픽 패턴이 새겨진 바탕은 넘치는 색과 몸짓과 질료를 붙들어 두려 한다. 각 작품은 자신의 구조와 싸우는 듯하다. 마치 선이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구성은 폭발, 소음, 균열을 드러낸다. 말하고 싶은 것과 억누를 수 없는 것 사이의 전장이다. 선은 더 이상 온전히 담기지 않기에 해체된다.



선의 프레부

Frevos dos Traços

2020 · 30 × 3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선의 프레부〉는 축제이자 현기증이다. 캔버스는 리듬으로 터져 나온다. 마치 모든 점이 상상의 악단 소리에 맞춰 맥박치는 듯하다. 생동하는 색채, 겹쳐진 패턴, 원을 그리는 몸짓은 선이 숨이 찰 때까지 춤추는 시각적 카니발을 만든다. 그것은 과잉의,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의 찬미다. 여기서 선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 움직이는 자신의 존재를 축하한다.



선의 올린다

Olinda dos Traços

2020 · 100 × 140 cm · 캔버스에 아크릴

개인 소장

〈선의 올린다〉는 군중, 열기, 그리고 흩어진 기억이다. 색의 점 하나하나가 돌길 위의 발걸음, 하나의 프레부, 하나의 외침, 거리 행렬 한가운데의 몸처럼 보인다. 캔버스는 2월의 도시처럼 맥박친다. 모든 것이 과잉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움인 곳. 중심도 방향도 없다. 카니발 기간의 올린다를 걸으며 거리가 어디서 끝나고 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선은 이끌지 않는다. 휩쓸어 간다.

형태의 발견

예술적 여정의 두 번째 단계에서, 탐색은 가장 진실한 방식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형태는 점점 더 경련적으로 변했고, 선을 하나의 악센트로 축소해 가면서 근원적 형태인 원이 나타났다. 깔끔함에는 개의치 않았다. 나의 책무는 서사에 있다. 나는 층 위에 층을 쌓았다. 모든 것을 드러내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비록 작품의 문힌 지층 속에서일지라도 혼돈의 에너지를 살아 있게 하려는 필요 때문이었다.





더러운 밤의 길 잃은 두 사람

Dois Perdidos em Uma Noite Suja

2020 · 이면화 20 × 4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더러운 밤의 길 잃은 두 사람〉은 침묵 속의 만남과 엇갈림이다. 흰 선들은 엇갈리는 말처럼, 저도 모르게 서로를 피하거나 찾는 시선처럼 구불거린다. 밤의 깊은 파랑이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매달려 있는 몸들을 짓누른다. 작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고, 느껴진 것의 자취만을 남긴다. 그것은 버려짐이고, 공모이며, 함께 나눈 어둠이다. 새벽 한가운데 느슨하게 묶인 매듭.



José Maria의 떠남

A Passagem de José Maria

2020 · 이면화 60 × 3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José Maria의 떠남〉은 하나의 의례다. 한 몸이 침묵 속에 캔버스를 가로지르고, 그 주위를 의식과 매장과 작별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과 메아리와 존재들이 둘러싼다. 밤의 파랑과 흰 선들은 성스럽고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암시한다. José Maria는 단지 하나의 이름이 아니다. 원형이며, 떠나면서 흔적을 남긴 누군가의 기억이다. 그림은 장례 행렬의 리듬, 슬픔과 초월이 뒤섞인 리듬을 지닌다. 여기서 떠남은 끝나지 않는다. 바라보는 이 안에서 계속된다.



성가족 1

Sagrada Família 1

2021 · 50 × 5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성가족 1〉은 성스러운 긴장이다. 선명한 붉은색의 구성은 살, 피, 유대, 갈등처럼 맥박친다. 얽힌 흰 선들은 상징적 연결의 그물을 이루고, 그 속에서 가족의 유대는 위안이라기보다 속박으로 나타난다. 고귀함과 폭력이 같은 무게로 존재한다. 여기서 성스러움은 고요하지 않고 강렬하다. 가족은 정지해 있지 않다. 끊임없이 마찰하는 힘의 장이다.



성가족 2

Sagrada Família 2

2021 · 60 × 7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성가족 2〉는 가족 유대의 드라마를 더욱 깊게 파고든다. 어두워진 팔레트와 더 짙은 몸짓은 침묵, 피로, 어쩌면 단절을 암시한다. 흰 선들은 여전히 이어져 있지만, 끊어지기 직전의 실처럼 눈에 띄는 긴장을 띠고 있다. 사랑이 있지만 마모도 있다. 구성은 흉터들 사이에서 애정이 버텨 내는 한 집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서 성스러움은 신화가 아니라 가장 날것의 상태로 존재하는 생존이다.



성가족 3

Sagrada Família 3

2021 · 40 × 5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성가족 3〉은 보호이자 억제다. 초록이 내밀한 정글처럼 구성을 지배하고, 그 안에서 유대는 지키기 위해, 동시에 숨 막히게 하기 위해 얹힌다. 형태들은 서로를 껴안고, 기대고, 지켜본다. 돌봄이 있지만 감시도 있다. 그것은 애정과 통제의, 소속과 감금의 영역으로서의 가족이다. 흰 선은 말해지지 않는 것의 윤곽을 그리며, 오직 느낄 수만 있는 것을 침묵 속에 간직한다.



가족들

Famílias

2021 · 100 × 14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가족들〉은 유대의 합창이다. 감싸면서도 거리를 두는 파랑 속에서, 선들은 무리와 원과 교차하는 실로 모여 애정, 통제, 부재와 현존의 그물을 암시한다. 각각의 무리는 살아 있는 세포, 하나의 집, 하나의 비밀처럼 보인다. 조화와 소음이 동시에 있다. 그림은 이상화하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존재의 미로를 지도로 그린다. 그것은 혼란이고, 버팀목이며, 존재라는 같은 얽힘 속에 함께 놓인 모든 것이다.



가족들, 또 다른 변주

Famílias, em Outras Variantes

2020 · 100 × 15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가족들, 또 다른 변주〉는 유대와 단절과 시도의 증식이다. 작품은 반복되면서도 결코 같지 않은 얼굴과 매듭으로 퍼져 나간다. 각각의 형태는 소속 혹은 갈등의 가능성이다. 선은 장난스러움과 긴장 사이를 오가며, 같은 평면 위에 공존하는 서로 다른 가족의 모습을 들려주는 듯하다. 여기서 애정은 여럿이고, 무질서하며, 깊이 인간적이다.

가족들, 또 다른 변주

스케일 · 100 cm × 150 cm (가로 × 세로)



비교용 인물: 신장 1.75 m



같은 침묵의 일곱 변주

Sete Variações do Mesmo Silêncio

2020 · 작품 7점 구성, 각 21 × 29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이 연작은 말하지 않으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일곱 개의 얼굴, 혹은 가면을 보여 준다. 각각에서 선들은 작은 변이를 거치며 반복된다. 억눌린 같은 감정의 메아리처럼. 파랑과 검정의 색조는 짙고 거의 물에 잠긴 듯한 분위기를 만든다. 초상의 무엇과 암호의 무엇이, 얼굴과 기호가 함께 있다. 말해지지 않는 것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다. 여기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압축된 현존이다. 하나의 몸짓이 일곱 개의 침묵하는 목소리로 자신을 옮기려 한다.

같은 침묵의 일곱 변주

7점 구성 · 2020



부분 1



부분 2



부분 3



부분 4



부분 5



부분 6



부분 7



타오르되 밝히지 않는 것

Aquiло que Queima e Não Ilumina

2020 · 이면화 20 × 40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두 막으로 된 이 구성에서, 강렬한 노랑과 그을린 황토색은 숨 막히는 열기의 분위기를 만든다. 선들은 불꽃처럼 부딪치지만 길을 비추는 빛은 없고, 오직 내면의 연소만 있을 뿐이다. 감정의 연소 속에 있는 형상들, 제자리에서 맴돌며 빛을 내지 않는 불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형상들이다. 이면화는 소진에 대해, 안으로 너무 뜨거운 날들에 대해 말한다. 여기서 타오르는 것은 정화하지 않는다. 그저 태워 없앨 뿐이다.



숲과 하늘과 강 사이에 누운 두 몸

Dois Corpos Deitados entre a Floresta, o Céu e o Rio

2020 · 21 × 29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두 몸이 풍경의 일부로서 땅에 자신을 내맡긴다. 숲과 하늘과 강 사이에 누워, 초록과 파랑과 칙묵에 둘러싸여 있다. 선은 그들을 자연에서 떼어 놓지 않고 그 안에 통합한다. 그들은 영토로서의 몸, 피난처로서의 몸이다. 작품은 도피가 아니라 더 큰 것에 대한 투항을 말한다. 여기서 사랑은 두려움 없이 신다. 마치 땅과 물이 더는 달아나고 싶지 않은 이들을 맞이하려 자리를 내어 준 것처럼.



몸-영토

Corpos-Território

2020 · 작품 3점 구성, 각 21 × 29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세 몸이 가지와 그림자와 물살 사이에서 나타났다 사라진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찾은 것도 아니다. 그들을 둘러싼 숲은 기억과 두려움과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들은 오솔길이고, 베인 자국이며, 어둠 속의 짧은 숨결이다. 각 형상은 자신에게서 달아나려 했으나 보았던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 붙들린 누군가의 파편이다. 여기서 풍경은 입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간직한다. 그곳은 우리의 두려움이 몸을 누이고 쉬는 곳이다.



Familexa와 침묵

Familexa e o Silêncio

2024 · 80 × 10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세 얼굴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처럼 떠오른다. 그들은 날것의 색과 기억의 층을 뚫고 안에서 밖을 바라본다. 꿰매어진 입은 어떤 비명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눈물은 없지만 부재가 있다. 그것은 접시 너머의 허기, 목소리와 자리와 이름의 결핍이다. 이미지를 둘러싼 침묵은 짙고, 거의 성스럽다. 여기서는 애정 또한 흥터를 지닌다.



8월의 하늘 아래 Familexa

Familexa sob o Céu de Agosto

2024 · 100 × 10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세 얼굴이 침묵 속에 맞닿아 있고, 꺼진 별들이 흩뿌려진 어두운 하늘이 그들을 감싼다. 그들은 울지 않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 온 이들의 피로를 짊어지고 있다. 차가운 색채는 약속 없는 밤을 그리고, 그 안에서 애정은 두려움과 뒤섞인다. 구석에서 반복되는 푸른 꽃은 위안이 아니라 저항이다. 이 가족에게 사랑은 가벼움이 아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질 때에도 붙드는 단단한 매듭이다.



Familexa, 대지와 시간

Familexa, Terra e Tempo

2024 · 80 × 9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세 얼굴이 따뜻한 점토 속 화석처럼, 먼지를 견뎌 낸 기억의 흔적처럼 떠오른다. 반쯤 감긴 눈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꿰뚫는다. 그 사이에는 마른 꽃들이 여전히 봄을 속삭인다. 마치 그곳의 무언가가 죽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듯이. 이것은 과거의 가족인가, 미래의 가족인가? 아니면 삶의 색이 떠난 뒤에도 견디는 유대의 초상일 뿐인가? 시간은 모든 것을 지우지 않는다. 때로는 안에서 여전히 맥박치는 것을 흙으로 덮을 뿐이다.



별과 속삭임 사이의 Familexa

Familexa entre Astros e Sussurros

2024 · 80 × 10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 세 존재가 불안한 별들로 수놓인 하늘 아래 침묵 속에 모인다. 그들의 얼굴은 조상의 별자리와 같다. 보이는 것과 부재하는 것 사이를 공전하는 기억과 트라우마와 애정의 내밀한 지도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은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함께 숨 쉴 뿐이다. 사랑이 있다. 부재가 있다. 선과 선 사이의 공간에 압축된 우주 전체가 있다. 때로 한 가족에게 남는 것은 그 중력뿐이기 때문이다.



대지의 베일 아래

Sob o Véu da Terra

2024 · 6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세 얼굴이 성스러운 시간의 정서적 화석처럼, 그물과 침묵의 피막에 덮인 채 떠오른다. 경악과 웃음 사이의 표정들은 점토와 피와 기억의 층을 뚫고 나온다. 그곳에는 무언가 태고의 것이 있다. 시간과 망각과 고통에 일그러졌을지라도 견뎌 내는 한 가족. 마치 대지가 그들을 은밀히 품어 두었다가, 묻힌 것이 모두 죽은 것은 아님을 드러낼 알맞은 순간을 기다려 온 것처럼. 뼈 속에 생명이 있다. 점토 속에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

존재의 격앙

제1부

이윽고 얼굴이 나타난다. 일그러진 채, 거의 비논리적인 진화를 거친 하나의 드로잉으로서. 그 드로잉은 어른스럽지 않으면서도 결코 유치하지 않은, 거리낌 없는 선을 통해 모든 것과 모든 이를 엿보며 숨어 있는 주체들을 그려 내려 한다. 선은 더욱 경련적으로 변해 이제 모든 크기에 이르고, 그려진 존재들의 혼돈스러운 에너지를 규정하려는 물감의 층이나 윤곽에 대한 욕구는 한층 더 병적인 것이 된다.





푸른 소용돌이의 소리

O Som do Vórtice Azul

2022 · 30 × 3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침실 벽의 메아리

Ecos na Parede do Quarto

2022 · 50 × 5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한 얼굴이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른다. 그 뒤에서 또 다른 얼굴이 지켜본다. 경계하는, 유령 같은, 어쩌면 공모하는 얼굴. 마치 기억과 현존이 겹쳐지고, 과거가 지금의 모든 몸짓 뒤에 숨어 엿보는 듯하다. 선들은 단단하고 거의 방어적이지만, 충격을 받아 내는 파랑과 회색 속에는 감추어진 다정함이 깃들여 있다. 그것은 자신에게 말하는지 벽에 말하는지 더는 알지 못하는 이의 초상이다. 두 개의 시간으로 갈라진 거울. 하나는 느끼고, 하나는 견딘다. 둘 다 그곳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메아리처럼.



침묵의 어깨 위에서

Nos Ombros do Silêncio

2022 · 50 × 5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두 얼굴, 경악 속의 쌍둥이, 침묵 속의 공모자. 그들의 눈은 보기보다 듣는 듯하고, 단단한 선으로 봉해진 입은 한 번도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가벼움은 대비에 의해 잘려 나간다. 노랑은 등대이지만 경고이기도 하다. 서로에게 기대지만 닿지 않는 형상들. 공존하지만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는 형상들. 마치 자기 안에, 그리고 또 다른 이의 곁에 살며 감정적 생존을 위한 말없는 협약을 맺은 것처럼. 그들을 잇는 선들은 사유의 실처럼 보인다. 혼란스럽고, 끊임없고, 맥박치는. 그것은 나누어진 침묵의 초상이다. 주어지지 않았으나 느껴진 포옹.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목소리

A Voz Que Ainda Não Nasceu

2022 · 30 × 3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형성 중인, 혹은 어쩌면 해체 중인 얼굴. 형상은 침묵과 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어 올리는 듯하다. 마치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검은 선들은 존재의 윤곽을 따라 구불거리고, 얼굴 안의 작은 그래픽적 몸짓들은 고유한, 태고의, 아직 잉태 중인 언어를 암시한다. 희망과 시작 같은 초록, 연약함의 생살 같은 분홍. 이 구성은 아직 자신의 소리를 찾지 못한 외침이다.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눈을 감은 채 세상을 더듬는 존재. 첫 단어 바로 앞의 순간. 내면이 지나갈 길을 청하는 바로 그 순간이다.



소리 없는 카니발의 초상

Retratos de Um Carnaval Silencioso

2023 · 회화 5점 연작 · 21 × 29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그들은 소리 없이 웃고, 윙크하고, 운다. 기억의 바람에 던져진 색종이처럼, 이 얼굴들은 결코 지나가지 않는 거리 행렬 속에서 춤춘다. 물감과 침묵과 색으로 지은 의상. 말없는 광란 속의 축제꾼들, 경악의 순간에 갇혀 있다.



세상의 끝을 꿈꾸던 소년들

Os Meninos que Sonhavam com o Fim do Mundo

2023 · 회화 3점 연작 · 30 × 40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그들에게는 아픈 기쁨이 있었다. 마치 모든 웃음이 작은 재앙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은 부서진 별들과 겪어 보지 못한 일들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미 부스러져 가던 시대의 소년들이었고, 빨강과 금빛으로 오려 내어진 채 얼굴에 침묵과 경악의 지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의 끝을 비극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놀이를 기다리는 이들의 구원으로서 꿈꾸었다.



제 이름을 지우듯 우리는 사랑했다

Amávamos Como Quem Apaga o Próprio Nome

2023 · 이면화 3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두 얼굴이 불가능한 포옹 속에서 충돌한다. 결코 일어나지 않는 입맞춤이 있다. 유년과 뒤섞이는 작별이 있다. 달콤한 색조는 몸짓의 잔혹함을 속이는 듯하다. 마치 사랑이 아이싱을 묻힌 손으로 저지른 범죄인 것처럼. 기억은 그곳에 살과 크레용에 뒤섞여 있고, 우리가 잊으려는 것의 두꺼운 층 사이에 우리의 조각들이 붙들려 있다. 그것은 할퀴는 다정함, 부패해 가는 애정이며, 그림에도 사랑이다.



모래 위에서 웃는 그림자

Um Vulto que Ri na Areia

2023 · 30 × 3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점토와 그을린 태양의 색조 사이로, 떠다니는 듯한 얼굴 하나가 나타난다. 가면인지, 탄식인지, 기억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끈질긴 검은 선이 침묵 뒤에 남은 것의 윤곽을 그린다. 무언가 부서졌지만, 여전히 숨 쉬고 있다. 한 눈은 웃고, 다른 눈은 과거를 엿본다. 오래전 어느 여름의 화재에서 살아남은 아이와 같다. 모래, 시간, 몸, 그리고 드로잉. 그곳의 모든 것이 쓰러지지 않으려 애쓴다. 마치 그리는 행위가 다시 세우는 행위이기도 한 것처럼.



잊힌 바람을 듣는 이들

Ouvintes do Vento Esquecido

2022 · 40 × 4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세 얼굴이 지친 돌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이미 지나간 무언가의 무게를 나눈다. 단단한 선은 오래된 침묵들을 감싸고, 열은 파랑은 틈새로 새어 나가는 기억을 속삭이는 듯하다. 그들은 더는 불지 않는 바람을 듣는 이들, 어쩌면 그 공모자들이다. 모든 선은 흉터이고, 열린 귀 하나하나는 성유물함이다. 한가운데에서 반쯤 다문 입이 더는 말할 수 없는 것을 간직한다.



나를 무는 가면들

Máscaras que Me Mordem

2023 · 회화 3점 연작 · 30 × 40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커다란 웃음, 너무 크게 뜬 눈, 그로테스크의 경계에서 춤추는 이빨. 기쁨을 가장하는, 혹은 어쩌면 우리의 기쁨을 비웃는 얼굴들이다. 웃는 듯한 그림들, 그러나 누구를 향해? 어쩌면 자신을, 어쩌면 우리를. 모든 선은 소리 없는 긴장을 외치고, 모든 색은 안팎이 뒤집힌 파티의 속임수다. 짐승의 무엇, 인형의 무엇, 거울의 무엇이 있다. 결국 그것들은 가면이고, 모두가 묻다.



숲을 조롱하는 정령들

Espíritos que Zombam da Floresta

2024 · 이면화 80 × 5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가장 깊은 초록에서 태어난 두 고대의 정령이다. 그들은 휘둥그레진 눈과 다물지 않는 입으로 세상을 조롱한다. 확신을, 의례를, 형식을 비웃는다. 그들의 얼굴은 광란의 물감으로 그린 살아 있는 가면이다. 그들은 우리 사이에 있으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부조리의 수호자, 보이지 않는 것의 파수꾼. 그들은 바람에 잎사귀를 날리듯 혼돈을 가지고 논다.



심연의 폭소

Gargalhada do Abismo

2024 · 50 × 6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광란 속에 휘갈겨진 존재, 반은 조롱꾼이고 반은 아이다.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놀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연필로 혼돈을 칠한다. 휘둥그레진 눈은 대답을 구하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벌린 입은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비웃는다. 그리고 맥박치는 색 하나하나와 함께 소리 없는 비명이, 일그러진 기억이 온다. 여기서 심연은 쇼킹 핑크를 입고 별의 눈을 하고 있다.



외눈의 군림

Reinado de Um Olho Só

2023 · 14 × 21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색의 폭발 속에서 그는 단 하나의 눈으로 군림한다. 다른 눈은 어쩌면 보고 싶지 않은 것에서 비켜나 있는지도 모른다. 그의 얼굴은 가면이자 살이고, 그의 몸짓은 춤이자 상처다. 점들은 흩어진 생각처럼, 흥터와 뒤섞인 어린아이의 상상처럼 퍼져 나간다. 여기에 침묵은 없다. 고통과 기쁨이 같은 왕좌를 나누어 앉은 내면의 카니발만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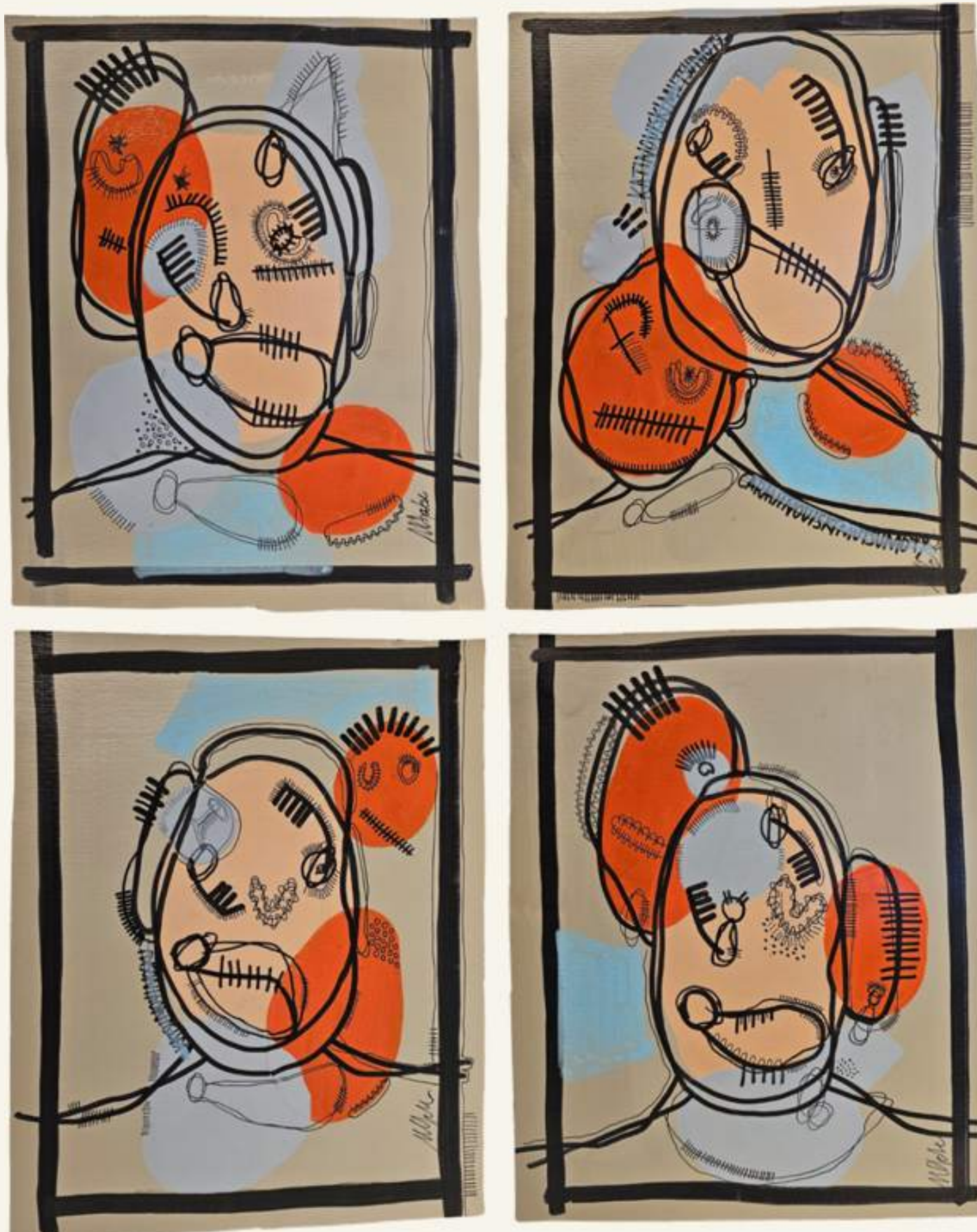
무지개 속에서 찢기다

Rasgado no Arco-Íris

2023 · 13 × 18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비뚤어진 웃음, 놀란 이빨, 허락을 구하지 않고 빛나는 눈. 그는 축제가 되기 위해 제 살갓을 찢는
이처럼 색으로 터져 나온다. 짐승도 사람도 아니다. 그는 충동이다. 그려진 목소리, 소리 없는
소음이다. 결국 그는 그저 보이고 싶은 것인지도, 혹은 그를 이해하려는 이를 비웃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Bublexas 연작

Série Bublexas

2024 · 회화 4점 연작 · 24 × 30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단단한 선으로 경계 지어진 얼굴들의 미학은 원형의 말풍선과 함께 생각의 거품이나 보호의 구체를 떠올리게 한다. 마치 각 형상이 자신만의 감정적 우주에 캡슐처럼 갇혀 있는 듯하다. 베이지 바탕 위의 주황과 파랑은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역동적 고립이라는 생각을 강화한다. 이 연작은 바깥의 소음 속 내면의 침묵을 탐구하는 듯하다. 소리를 덮어 버리지만 동시에 지켜 주기도 하는 거품들.



종말의 카니발

Carnaval do F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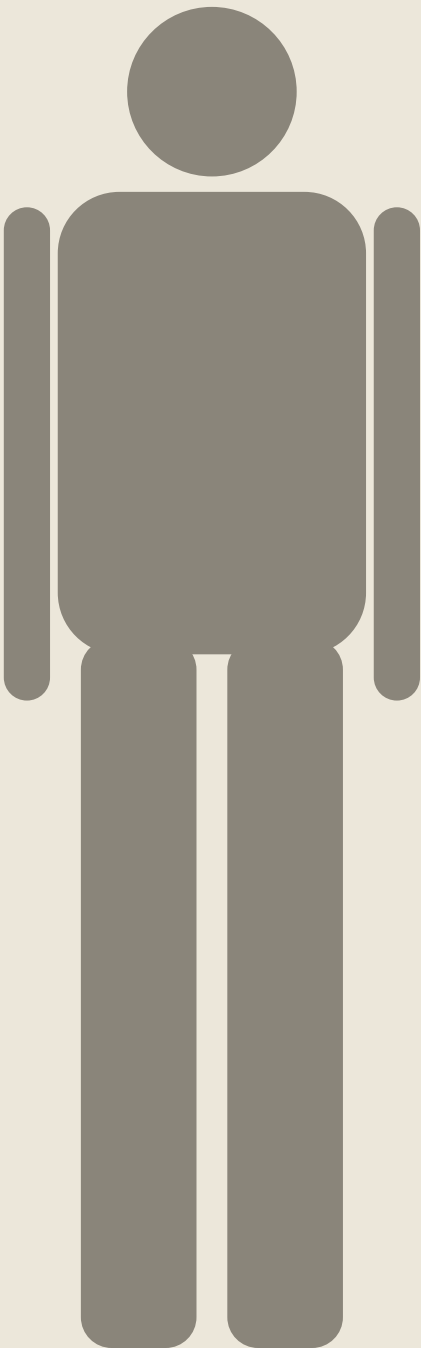
2024 · 180 × 20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남는 웃음이다. 더럽고, 비뚤어지고, 억누를 수 없는 웃음. 여기서 슬픔은 반짝이 속에서 춤추고, 비극은 가면을 쓰며, 트라우마는 거리 행렬 속에서 노래한다. 그것은 과잉의 행진, 붕괴를 비웃는 집단적 광란이다. 울려면 숨이 필요한데, 이제 남은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얼굴은 우리 자신의 혼돈을 비추는 일그러진 거울이며, 더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조롱한다. 웃음은 생존이 되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그려진 비명이다.

종말의 카니발

스케일 · 180 cm × 200 cm (가로 × 세로)



비교용 인물: 신장 1.75 m

존재의 격앙

제2부

위반에 대한 두려움은 끝나고, 혼돈은 붓질 하나하나에, 작품 위에 쌓는 층 하나하나에 자리 잡는다. 완성의 순간은 늘 의심되고 다시 검토된다. 어떤 작품은 수년 전에 시작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마지막 선, 획, 혹은 외침을 더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격앙은 정점에 이른다. 사회의 붕괴가 캔버스 위에서, 선 속에서, 인물들의 에너지 넘치는 형태 속에서 펼쳐지는 묵시록처럼.





이성의 장례식

O Velório do Razão

2021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한 몸이 표면 위에 누워 있다. 어쩌면 누군가, 어쩌면 하나의 생각. 그 위에서 한 형상은 애도하지 않는다. 지켜본다. 초록은 썩은 희망처럼 맥박치고, 파랑은 웃음 뒤의 침묵이다. 정신은 고장 난 회전목마처럼 풀린 채 돈다. 얼굴은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계속 나아가기를 원한다. 웃음은 즐겁게 하지 않는다. 작동하기를 고집하는 제정신에 기름을 칠한다. 금이 간 채로라도. 의미가 없더라도.



비추지 않는 거울들

Espelhos Que Não Refle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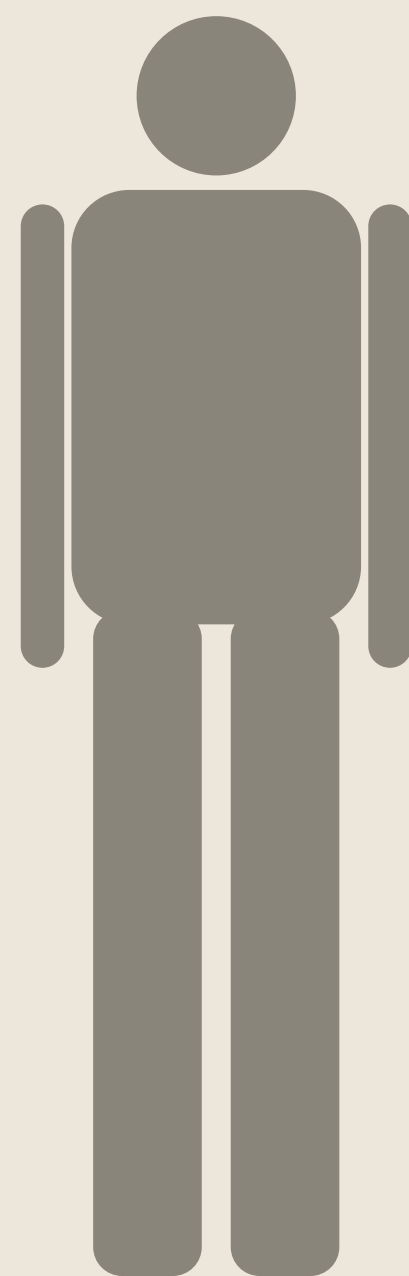
2022 · 200 × 18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두 얼굴이 나란히, 결코 마주 보지 않는 메아리처럼 놓여 있다. 그들은 균열과 침묵 사이, 혼란스러운 초록 속에서 녹아든다. 무엇도 선명하지 않다. 얼굴도, 생각도. 파랑이 모든 것을 잠기게 한다. 여기서 반영은 드러내지 않는다. 녹여 없앤다.

비추지 않는 거울들

스케일 · 200 cm × 180 cm (가로 × 세로)



비교용 인물: 신장 1.75 m



내면의 군중

A Multidão Dentro

2021 · 40 × 5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둘인, 혹은 그 이상인 얼굴. 가면 위의 가면, 그 위의 또 다른 가면. 선들은 침묵 속에 외친다. 마치 각각의 층이 먼저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것처럼. 혼란은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초상이다. 여기서 주체는 기억과 경악과 메아리 사이에서 허물어진다.



혈관의 카니발

Carnaval Vascular

2021 · 60 × 7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물감의 혈관이 내면의 북소리에 맞춰 맥박친다. 동맥과 색종이로 된 얼굴은 모든 신경으로 미소 짓는다. 여기서 광란은 해부학이다. 살, 색, 과잉. 살갓 아래의 행진.



불타는 웃음

Riso Ardente

2024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불꽃이 얼굴을 핏지만, 그는 미소 짓는다. 용기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길들여진 내밀한 우리의 초상이다. 그의 뿔은 왕관이다. 그의 웃음은 불길이다. 타오르지만, 춤춘다.



비뚤어진 빛

Luz Torta

2024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모든 것이 지나치게 빛나지만, 제자리를 벗어나 있다. 휘둥그레진 눈은 이것이 황홀인지 현기증인지 알지 못한다. 빛은 비뚤게 들어와 닿는 것을 일그러뜨리고, 얼굴은 반사적으로, 혹은 방어로서 미소 짓는다. 이 색채의 광란 속에서는 두려움마저 색을 얻는다.



무제 I

Sem Título I

2024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안에서 무언가 조여 오지만, 밖으로는 웃으며 빠져나간다. 경고들로 껴매어진 얼굴은 이빨 사이로 비명을 붙들고 있는 듯하다. 모든 것이 색이고 소음이지만, 그 중심, 바로 그곳은 찌르는 침묵이다.



무제 II

Sem Título II

2024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세상을 향한 허기로 미소 짓지만, 그 눈은 오래된 피로를 드러낸다. 그에게는 광대의 무엇과 예언자의 무엇이 있다. 색은 희망을 외치지만, 선은 균열을 드러낸다. 그것은 방어로서의, 혹은 복수로서의 기쁨이다.



무제 III

Sem Título III

2024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두 얼굴, 뒤섞인 하나의 운명. 앞의 형상은 입꼬리로 미소 짓고, 뒤의 그림자는 속으로 웃는 듯하다. 선과 겹침 사이에 긴장이 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장하는가? 혼돈은 함께 나누어진다. 마치 제정신이 둘이 추는 춤이며, 누가 이끄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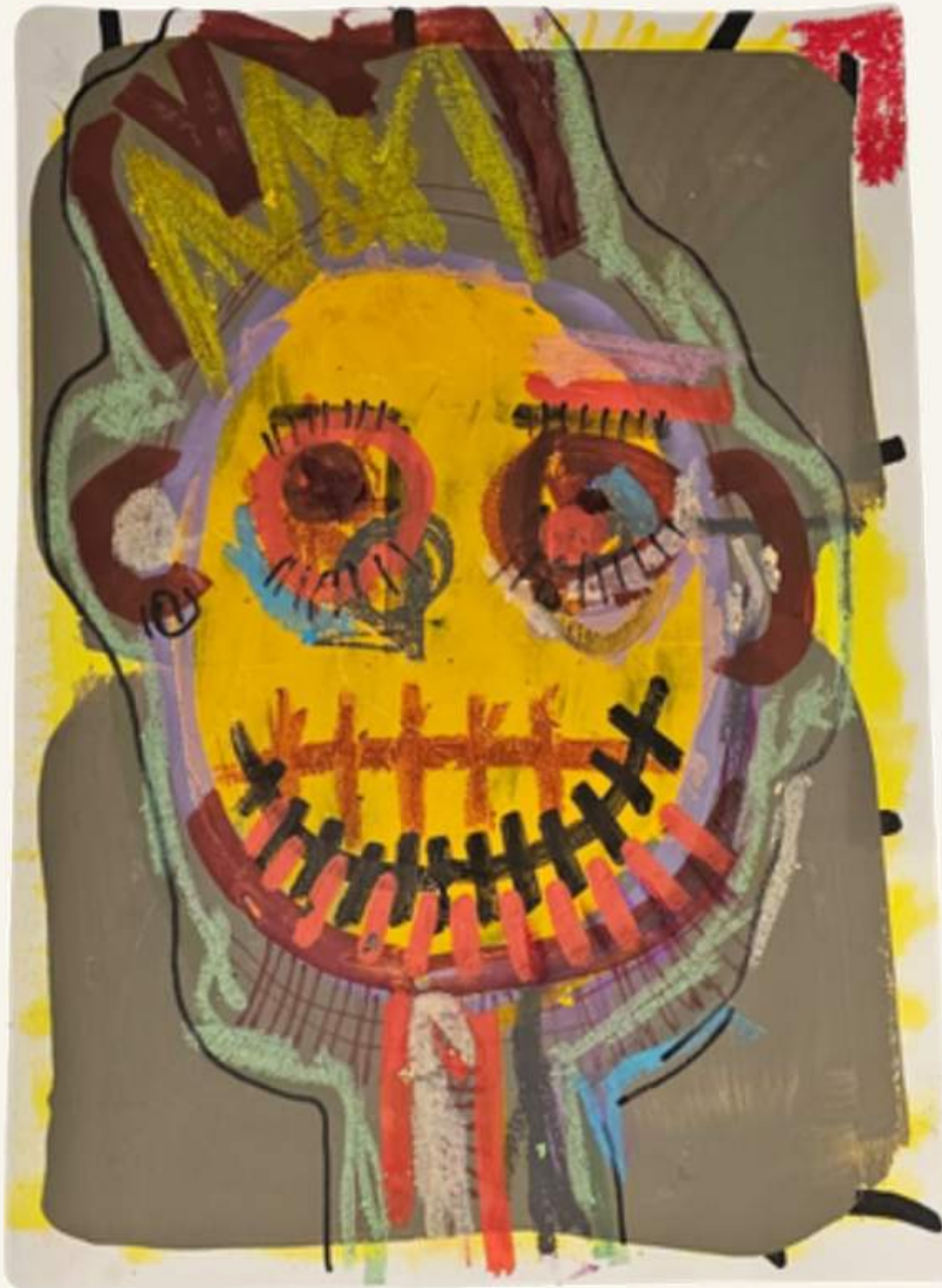


Exasvid

2023 · 30 × 40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미소는 넓지만 초대하지 않는다. 붙여 놓은 듯, 안에서 억지로 짜낸 듯하다. 마치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웃는 것처럼. 눈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며, 이미 지나가 버린 카니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모든 것이 빛나지만, 무언가 닳아 있다. 구멍 뚫린 종이는 오래된 성적표를 떠올리게 한다. 서류철에 넣어진, 망각의 문턱에 선 얼굴.



Reixaper

2023 · 30 × 40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그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혹은 너무 잘 이해한 사람처럼 미소 짓는다. “Reixaper”는 이름이 아니다. 지어낸 소리, 그를 쓰러지지 않게 붙드는 다채로운 광기로 들어가는 암호다. 노란 얼굴은 진흙으로 된 액자 속에서 빛난다. 잿빛 날의 비상등처럼. 인간의 글리치. 우리가 지울 수 없는 모든 것의 토템.



Flowersaper

2023 · 30 × 40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꽃은 피어났지만, 낯선 땅에서였다. “Flowersaper”는 정원의 색을 지녔지만, 아름다움 또한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아는 이의 표정을 하고 있다. 미소는 머뭇거린다. 안에서 꺾매어진 눈은 혼란스러운 기억을 간직한다. 유년인가, 혼돈인가? 분홍과 초록과 파랑의 색조 사이에서 가시 하나가 자란다. 의심이다. 다정해 보이는 것이 떨린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찌른다. 아름답지만 비뚤어진 모든 것의 초상이다.



Familexas 연작

Série Familexas

2023 · 회화 3점 연작 · 30 × 40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가족인가, 허구인가? 〈Familexas〉에서 각각의 얼굴은 한때 존재했던, 혹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듯하다. 파랑과 검정과 보라의 층 속에서, 초상들은 부서진 유대, 일그러진 애정, 잇기보다 읊아매는 매듭을 드러낸다. 유년의 기색이 있지만 단절의 기색도 있다. 모두가 텅 빈 눈과 봉해진 미소로 포즈를 취한 가족 앨범. 여기서 유산은 감정적인 것이며, 소음으로 무겁다.



Milicexas 연작

Série Milicexas

2024 · 회화 4점 연작 · 30 × 40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군복의 색조와 혼돈스러운 선으로, 〈Milicexas〉는 통제와 두려움과 권력의 캐리커처가 이어지는 계보를 그린다. 일그러진 이름, 지어낸 단어, 긴장된 표정들이 소리 없이 외치는 얼굴들의 갤러리를 이룬다. 이 연작은 노골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 암시하고, 찌르고, 비꾼다. 마치 각 형상이 상상의 제국, 그러나 위험할 만큼 낯익은 제국에 속한 것처럼. 여기서 웃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는 것은 봉기하는 것이다.



Caotibkismo

2023 · 30 × 40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검정과 하양과 절박함으로 만들어졌다. 〈Caotibkismo〉는 시각적 선언이며, 꼭두각시의 모습을 한 비명이다. 글자들은 비뚤게 나타난다. 침묵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이처럼. 공포와 무감각 사이에 얼어붙은 얼굴은 혼돈이 미학이 되고, 생존의 방식이 된 시대의 정신을 포착한다. 여기서 모든 것이 흘러내리고, 모든 것이 진동하고, 모든 것이 지친다. 그림에도 모든 것이 버틴다.



Ninexas 연작

Série Ninexas

2024 · 회화 9점 연작 · 30 × 40 cm · 판지에 혼합 매체

일괄 판매 ·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아홉 개의 얼굴. 같은 붕괴의 아홉 가지 변주. 〈Ninexas〉 연작은 이를 악문 채 웃고, 눈을 크게 뜬 채 우는 듯하다. 각 초상은 형태를 지키려는 시도이지만, 선은 결코 닫히지 않고 윤곽은 언제나 새어나간다. 고요가 부족한 곳에 색이 너무 많다. 말이 더는 남지 않은 곳에 몸짓이 너무 많다. 그것은 변이하는 가면들의 앨범이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지만, 어느 것도 대답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

Ninexas 연작

9점 구성 · 2024



부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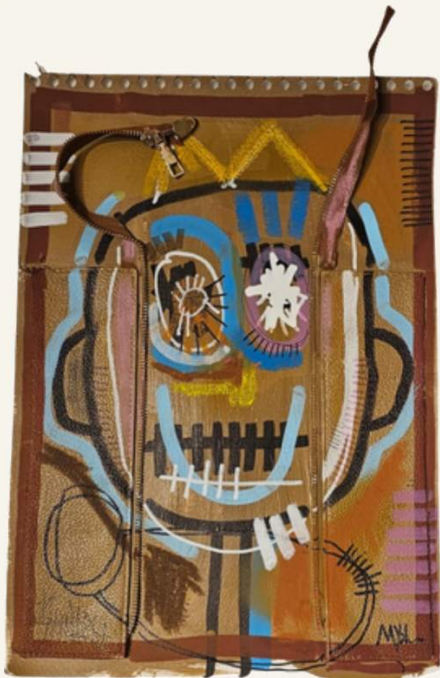
부분 2



부분 3



부분 4



부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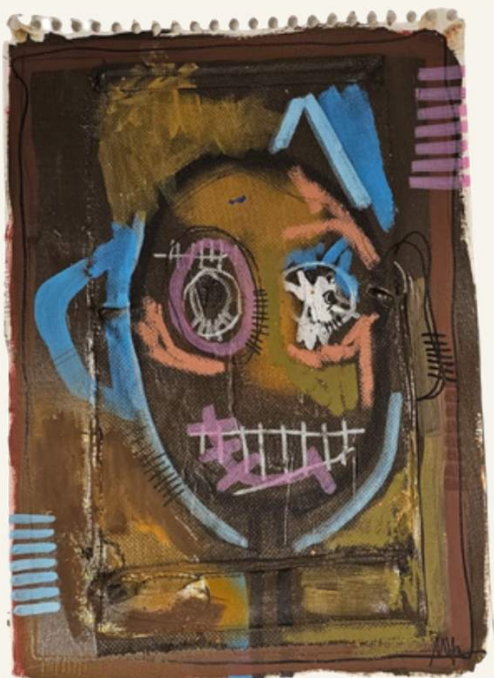
부분 6



부분 7



부분 8



부분 9



Latexopera

2023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접히고, 뒤틀리고, 벗겨지는 얼굴. 〈Latexopera〉에서 정체성은 녹아내리는 듯하다. 혹은 스스로를 지키는 듯하다. 안의 과잉을 담아 두려는 두 번째 피부처럼. 색들은 침묵에 저항하듯 진동하지만, 몸짓에는 무언가 움츠러든 것이 있다. 머리는 숙여지지만 굴복은 아니다. 그것은 만들어지고 있는 변장이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가면이 되는 법을 배우는 몸.



Iconexa

2025 · 63 × 63 cm · 디지털 프린트 접착 시트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고전이 혼돈을 침범한다. 광란의 한가운데에 하나의 초상이 있다. 평온하고, 태고의, 거의 온전한. 그 주위로 세계는 색과 굵은 자국 속에 무너져 내린다. 마치 시간이 영원의 고요를 삼키려는 듯이.

〈Iconexa〉는 성스러움과 붕괴 사이의 일그러진 제단이다. 이미지는 견디지만 포위되어 있다. 숭배받는 동시에 모독당한다.



Selficonexa

2025 · 63 × 63 cm · 디지털 프린트 접착 시트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피조물 안의 작가. 초상은 관찰하지 않는다. 관찰당한다. 일그러짐의 틀 안에서 실제의 얼굴은 광란과 뒤섞인다. 〈Selficonexa〉는 선으로 산산이 부서진 거울이며, 안에서부터 찢긴 정체성의 외침이다. 여기서 예술은 재현하지 않는다. 집어삼킨다.



León과의 Iconexão

Iconexão com León

2025 · 63 × 63 cm · 디지털 프린트 접착 시트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이것은 세계들 사이의 만남, 물감과 종이와 기억과 창안의 층으로 콜라주된 만남이다. León의 이미지는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버틴다.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현존으로서. 그려진 얼굴이 그를 흡수하고, 구석의 짙은 태양은 시간의 흐름을 외친다. 여기서 연결은 내밀한 것과 아이콘적인 것 사이의 협약이다.



Pauta Amor

2025 · 63 × 63 cm · 디지털 프린트 접착 시트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우리가 사랑하는 혼돈에게 보내는 그래픽 편지. 지워진 단어들과 크게 뜯은 눈들 사이에서, “TUA AMOR”는 간청이자 선고로 떠오른다. 색은 폭발하지만, 중심은 말없는 부탁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혼란을 견디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술로 바꾸는 것이다.



The Tote I

2024 · 32 × 64 cm · 합성 피혁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그저 가방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의 성유물함이다. 혼돈의 천에 꿰매어진 얼굴들, 반쯤 들려준 이야기를 외치는 듯한 낙서들. “THE TOTE”는 지지체이자 상징이 된다. 세계를, 그리고 이미 그 안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실어 나른다.



The Tote II

2024 · 32 × 64 cm · 합성 피혁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 가격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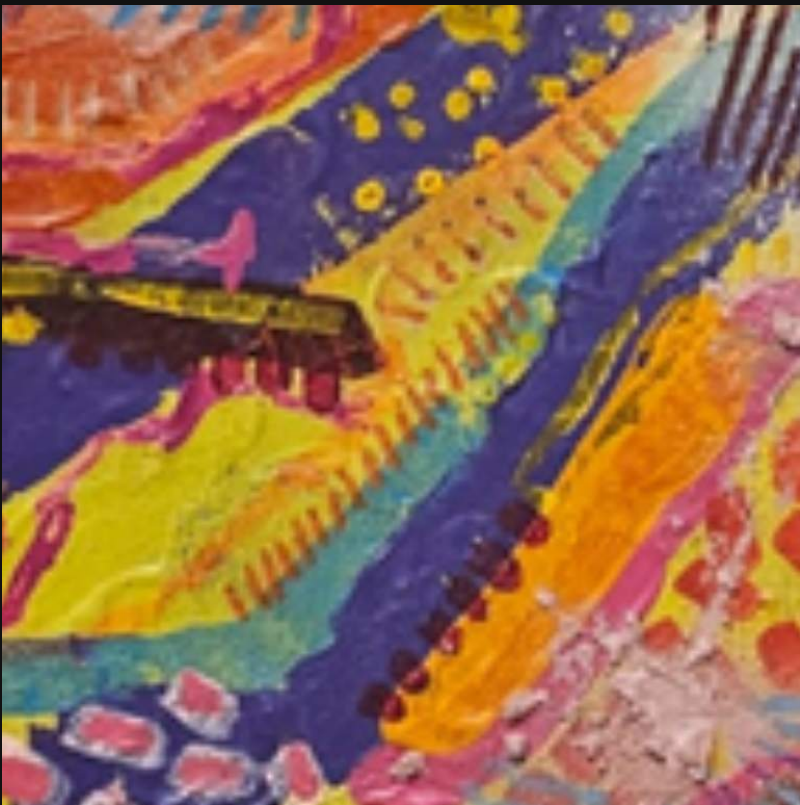
일그러진 얼굴들의 행렬이 닳은 가죽 위를 행진한다. 기억, 트라우마, 도시와 무의식의 속삭임. “THE TOTE II”는 사물 이상의 것이다. 모든 것이 소음이고 몸짓이고 현존인, 붕괴하는 시대의 문신 새긴 피부다.

마티에르와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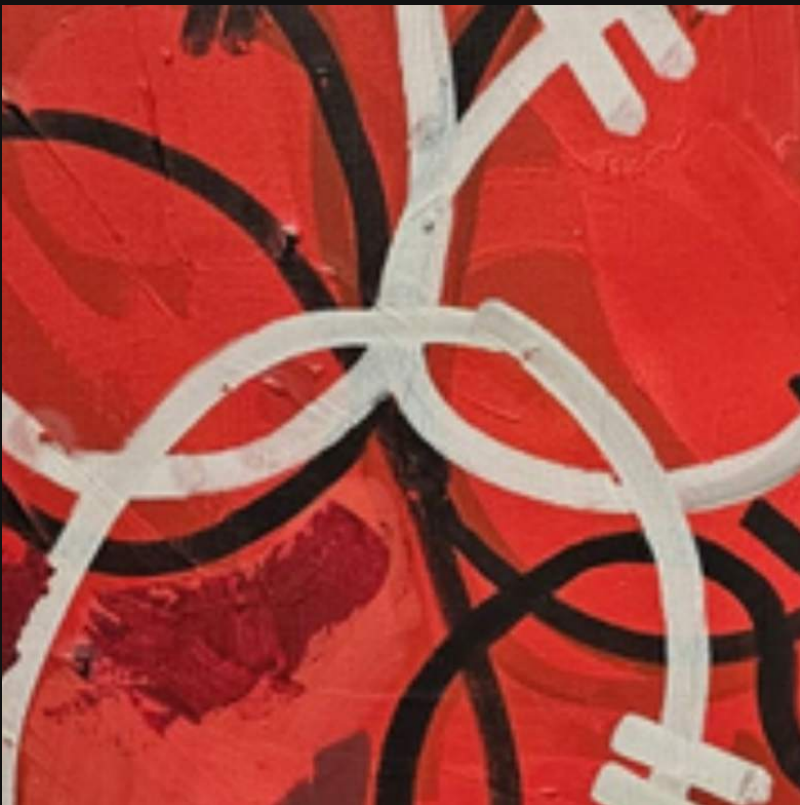
작품 표면의 세부 클로즈업.



선의 발견, 2020



선의 프레부, 2020



성가족 1, 2021



8월의 하늘 아래 Familexa, 2024



종말의 카니발, 2024



Latexapera, 2023

선언문

나는 목구멍에 다 담기지 못한 비명이다.

나는 비뚤어진 선, 과잉, 결함, 찬미된 오류다.

나의 예술은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는다. 맞서고, 뒤흔들고, 도발한다.

그것은 나의 모국어, 나의 잔혹한 언어다.

나는 분노와 다정함으로 그린다.

신경질적인 웃음과, 잠들지 못하는 새벽의 침묵으로.

내가 만드는 모든 얼굴은 깨진 거울이다.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반영이다. 다수이고, 상처 입었고, 살아 있는.

나는 깨끗한 미학에도, 길들여진 형태의 논리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의 기하학은 불안정하고, 나의 성자들은 비뚤어져 있으며, 나의 악마들은 형광빛 이로 웃는다.

나는 더러운 도시의, 구겨진 공책의, 보여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얻어맞는 캔버스의 자식이다.

나는 묘사하지 않는다. 드러낸다.

그것은 보호하는 척하는 권위에 맞서는 비명이다.

그것은 애정과 유산과 감정적 소음의 뒤엉킴이다.

그것은 진흙에서 피어난 꽃이며, 그림에도 미소 짓는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지 않는 척하는 같은 고통의 얼굴들이다.

나는 미술관을 원하지 않는다. 벽을, 짐을, 휴터를 원한다.

나는 나를 꿰뚫는 것을 그린다. 나를 찢는 것을 그린다. 나를 치유하는 것을 그린다.

나의 예술에는 바니시가 없다. 피와 침과 땀과 영혼이 있다.

나는 Yabe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침묵에 맞서, 좋은 취향에 맞서, 정상성에 맞서는.

바라보는 이는 느끼라. 느끼는 이는 짚어지라.

그리고 짚어진 이는 변화시키라.

이것은 회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존이다. 의례다. 불꽃이다.

그것은 붕괴 뒤에 남은 것이다.

욕망의 막간

작품들의 경련 같은 이어짐, 급진적인 양식의 변화, 그리고 내가 회화를 대하는 무정부적인 자유에 당신은 당혹스러웠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나의 용기 부족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작품을 하나씩 보여 주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그 여정을 따라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당신이 보는 것은 하나의 닫힌 시기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카탈로그로 응축된 시기다.

"존재의 격앙, 제2부"는 17점의 작품이 더해지며 이어질 것이다. 그 뒤를 이어 "존재의 격앙, 제3부"는 우선 다양한 재료로 된 38점의 작품을 아우를 것이다. 미학적 전복을 향한 탐색은 계속된다.

존재의 욕망을 향한 나의 이 광적이고 황홀한 여정에 함께해 주어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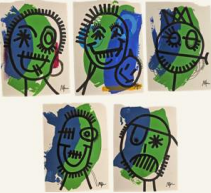
작품 목록

코드	상태
 MY-2020-001 선의 발견 2020 · 118 × 18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0-002 존재의 겹쳐진 선들 2020 · 이면화 20 × 4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0-003 연인들을 잇는 선 2020 · 30 × 3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0-004 자아의 혼돈스러운 선 2020 · 30 × 3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0-005 선의 본성 2020 · 20 × 2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0-006 세 마리아의 선 2020 · 삼면화 240 × 12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0-007 그어진 운명 1과 2 2020 · 20 × 4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0-008 선의 몸 연작 2020 · 회화 3점 연작 · 2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0-009 선의 섹슈얼리티 연작 2020 · 회화 4점 연작 · 29 × 21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0-010 선의 로맨티시즘 1과 2 2020 · 각 29 × 21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코드	상태
	MY-2020-011 어두운 선 2020 · 29 × 21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0-012 선의 네 물줄기, 그리고 같은 몸들 2020 · 29 × 21 cm · 판지에 아크릴	개인 소장
	MY-2020-013 선, 태양과 바다를 만나다 2020 · 21 × 29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0-014 그어진 장면 1과 2 2020 · 각 21 × 29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1-015 그어진 파벨라 장면 2021 · 이면화 120 × 80 cm · 캔버스에 초크	판매 가능
	MY-2020-016 선과 사람들의 이야기 2020 · 이면화 40 × 2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0-017 선의 실존주의 2020 · 30 × 3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0-018 선의 해체 1, 여섯 부분 2020 · 캔버스 6점 구성, 각 20 × 2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0-019 선의 해체 2, 세 부분 2020 · 작품 3점 구성, 각 29 × 21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0-020 선의 프레부 2020 · 30 × 3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코드	상태
	MY-2020-021 선의 올린다 2020 · 100 × 140 cm · 캔버스에 아크릴	개인 소장
	MY-2020-022 더러운 밤의 길 잃은 두 사람 2020 · 이면화 20 × 4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0-023 José Maria의 떠남 2020 · 이면화 60 × 3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1-024 성가족 1 2021 · 50 × 5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1-025 성가족 2 2021 · 60 × 7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1-026 성가족 3 2021 · 40 × 5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1-027 가족들 2021 · 100 × 14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0-028 가족들, 또 다른 변주 2020 · 100 × 15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0-029 같은 침묵의 일곱 변주 2020 · 작품 7점 구성, 각 21 × 29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0-030 타오르되 밝히지 않는 것 2020 · 이면화 20 × 40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코드	상태
	MY-2020-031 숲과 하늘과 강 사이에 누운 두 몸 2020 · 21 × 29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0-032 몸-영토 2020 · 작품 3점 구성, 각 21 × 29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4-033 Familexa와 침묵 2024 · 80 × 10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4-034 8월의 하늘 아래 Familexa 2024 · 100 × 10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4-035 Familexa, 대지와 시간 2024 · 80 × 9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4-036 별과 속삭임 사이의 Familexa 2024 · 80 × 10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4-037 대지의 베일 아래 2024 · 6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2-038 푸른 소용돌이의 소리 2022 · 30 × 3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2-039 침실 벽의 메아리 2022 · 50 × 5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2-040 침묵의 어깨 위에서 2022 · 50 × 5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코드	상태
	MY-2022-041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목소리 2022 · 30 × 3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3-042 소리 없는 카니발의 초상 2023 · 회화 5점 연작 · 21 × 29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3-043 세상의 끝을 꿈꾸던 소년들 2023 · 회화 3점 연작 · 30 × 40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3-044 제 이름을 지우듯 우리는 사랑했다 2023 · 이면화 3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3-045 모래 위에서 웃는 그림자 2023 · 30 × 3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2-046 잊힌 바람을 듣는 이들 2022 · 40 × 4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3-047 나를 무는 가면들 2023 · 회화 3점 연작 · 30 × 40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4-048 숲을 조롱하는 정령들 2024 · 이면화 80 × 5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4-049 심연의 폭소 2024 · 50 × 6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3-050 외눈의 군림 2023 · 14 × 21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코드	상태
	MY-2023-051 무지개 속에서 찢기다 2023 · 13 × 18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4-052 Bublexas 연작 2024 · 회화 4점 연작 · 24 × 30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4-053 종말의 카니발 2024 · 180 × 200 cm · 캔버스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1-054 이성의 장례식 2021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2-055 비추지 않는 거울들 2022 · 200 × 18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1-056 내면의 군중 2021 · 40 × 5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1-057 혈관의 카니발 2021 · 60 × 7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4-058 불타는 웃음 2024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4-059 비뚤어진 빛 2024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4-060 무제 I 2024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코드	상태
	MY-2024-061 무제 II 2024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4-062 무제 III 2024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3-063 Exasvid 2023 · 30 × 40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3-064 Reixaper 2023 · 30 × 40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3-065 Flowesaper 2023 · 30 × 40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3-066 Familexas 연작 2023 · 회화 3점 연작 · 30 × 40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4-067 Milicexas 연작 2024 · 회화 4점 연작 · 30 × 40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3-068 Caotibkismo 2023 · 30 × 40 cm · 판지에 아크릴	판매 가능
	MY-2024-069 Ninexas 연작 2024 · 회화 9점 연작 · 30 × 40 cm · 판지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3-070 Latexapera 2023 · 50 × 60 cm · 캔버스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코드	상태
	MY-2025-071 Iconexa 2025 · 63 × 63 cm · 디지털 프린트 접착 시트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5-072 Selficonexa 2025 · 63 × 63 cm · 디지털 프린트 접착 시트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5-073 León과의 Iconexão 2025 · 63 × 63 cm · 디지털 프린트 접착 시트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5-074 Pauta Amor 2025 · 63 × 63 cm · 디지털 프린트 접착 시트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4-075 The Tote I 2024 · 32 × 64 cm · 합성 피혁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MY-2024-076 The Tote II 2024 · 32 × 64 cm · 합성 피혁에 혼합 매체	판매 가능

판매 조건

가격	가격은 문의 시 판매 담당자가 안내한다.
진품 보증	모든 작품에는 작가가 서명한 진품 보증서가 함께 제공된다.
서명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서명이 있다.
예약	판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작품을 예약할 수 있다.
포장 및 운송	작품과 목적지에 따라 견적을 산정하며, 브라질 국내와 해외 모두 가능하다.
인도 기한	위치와 운송 방법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정한다.

구입 안내

우리가 언제 만났느냐에 따라, 당신은 나를 퍼블리셔로, 혹은 어느 기업의 경영인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작가로서의 이 얼굴에서, 나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작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의 판매와 협상에 관한 모든 과정은 시장 경험이 풍부한 여성 영업 전문가에게 맡겨져 있다.

판매 문의

Fernanda Walter

판매 담당

+55 41 9731-7759



Marcus Yabe

포트폴리오 / 카탈로그 001

판매 문의: Fernanda Walter · +55 41 9731-7759

2026년 10월판